



■ 편집부

풍산은 한 우물을 파는 비철금속 전문기업이다.

국가 경제발전의 향도로서, 안으로는 칠천의 전 사원이 합심단결 최선을 다함으로써 바야흐로 풍산 브랜드의 기술을 수출하고 세계 동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World Vision의 기업이다.

환경관리 최우선, 차선은 안전-내노라 하는 풍산의 결실들은 무엇보다도 안팎으로 종업원들의 환경관리를 최우선하는 현명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유지시켜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돌림병처럼 앓는 노사문제도 진통없이 원만히 해결되고 여전한 방식으로 사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성실한 태도에서 그들의 심신이 건강하며 따라서 사주가 환경관리를 위해 애써 온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동과 아연을 합금하며 2차 산업의 기간 소재를 생산해 내고 있는 풍산은 각종 동제품과 정밀산업인 반도체 리드후레임 신소재, 88서울올림픽 기념주화를 만들고 있고 소전은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온산, 부산동래, 안강에 각각 공장이 있고 이번에 방문한 부평공장이 내년 시월이면 창사 20주년을 맞는 풍산의 모체가 된다고 한다. 각 공장마다 환경관리과가 개설되어 사원들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곳엔 김정섭부장 휘하에 80명의 공무부직원이 있고 그 가운데 환경관리과 소속 열 세 명이 김영춘(37세) 과장을 중심으로 푹푹 뭉쳐서 회사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품질관리분임조(맑은 물 분임조) 활동을 하여 약품비를 절감하고 공정과 설비를 개선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김과장 부임 당시인 80년에 폐수 1m³당 540원인 처리비용을(인건비제외)

87년에는 220원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11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내 분임조 활동에 대한 사례발표대회에서 85년엔 맑은 물 분임조가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환경관리과 사람들은 과친목회를 조직하여 봄 가을로 체육대회와 야유회를 개최하는 성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과뿐 아니라 각 부서, 전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이 특징이라고 한 관리인이 컷속말로(?) 자랑을 한다. 김과장은 대기, 열관리에 각각 1급의 자격을, 김성하 관리인은 수질 1급의 기사자격을 갖추고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김과장이 환경관리를 맡기 전까지 사실상 제도적 설비와 행정에 지금같이 상사들의 원활한 뒷받침이 없었다고 한다. 관리인의 임무는 직장의 상사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보전법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며 대화와 보고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첫째라고 하면서 부단히 공부해야 하고 자신처럼 많이 싸워야(?)한다고 김과장은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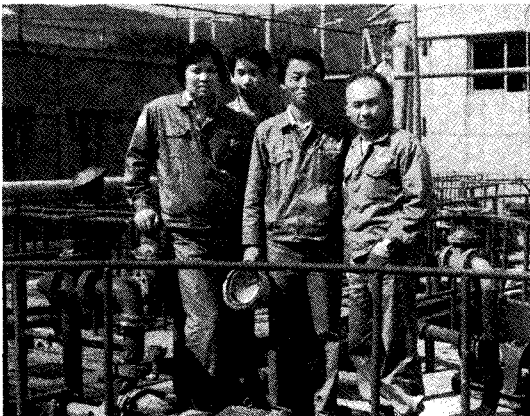
그러면 이제 풍산을 닦아낸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그 방지시설의 현장을 살펴보자. 풍산의 폐수는 금속폐수로서 1일 500t이 처리되는데 COD 30ppm, SS 30ppm, 노르말 핵산

미량, 동 함유량은 350이던 것을 0.5ppm으로, 아연 120을 0.5ppm으로, pH8-9이던 것을 pH 6.8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은 분진과 SO₂, 매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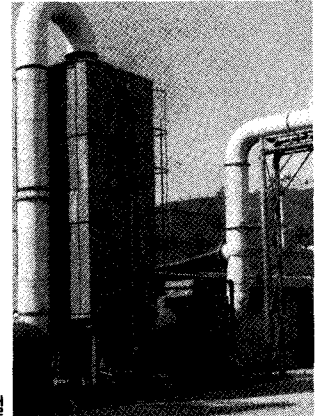
방지시설은 78년부터 80년까지 수질 부문에 2억 6천만원, 대기 부문에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돈 애기가 나왔으니 환경관리 운영을 위한 연간 비용도 마저 알아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가 대기에 8천만원, 수질에 6천만원으로 도합 1억 4천만원이 소요된다 한다.

폐수처리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중화와 침전을 위해 소석회와 다량으로 쓰이고 있다. 부평공장의 일부 업무가 지방의 공장으로 분산된 관계로 인해 천오백 톤의 처리용량이 십분 발휘되고 있지는 못했지만 늘 유비무환의 상태여서 참으로 넉넉하니 좋아보였다. 측정은 A·A분석기로 1일 1회 자가측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 시설로는 1550m³/min의 여과 집진기 2대, 120m³/min의 원심력을 이용한 Back Filter 방식의 집진기 4대, 산세척시 발생하는 가스 중화를 위한 폐가스세척 시설로 분당 300m³, 60m³, 80m³를 각각 처리할 수 있



◀ 현장에서 직원과 함께



▶ 산세시설

는 3 대의 시설이 있다.

처리수는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나 투명하였다. 일부는 폐수처리에 재사용되고 있는데 탈수포 세척 및 약품용해용수로 사용하여 연간 2천만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한다. 폐수처리후 발생하는 Sludge 역시 이용할 것이 있어 (16%의 동을 함유) 매각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듯 풍산의 환경관리과는 고양되는 환경관리의식과 함께 환경관리가 소비요 투자 뿐이라는 인상에서 벗어나 생산부서 못지 않은 주요부서로 그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과원들의 계속적인 탐구태도와 성실성, 애사심내지 애국심의 발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전기료를 대치함으로써 유관한 16

개 시설에 의무면제를 받는다는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서의 현장사원과 관리감독자들을 상대로 사내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Q.C.C (Quality Control Club) 활동을 계속하는 것, 공장폐수와 무관하게 배출되는 일반 폐수도 신경을 써서 최종 배출구에 우수 분리조를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살뜰함 등이다. 상이나 공을 양보하여 현장인들에게 돌리는 깨끗한 인품의 관리자들과의 태도와, 협력의 자세로 공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인들 - 집수조마다 쪽빛, 녹두빛의 푸른 청동빛같이 장인정신을 추구하는 풍산금속의 푸른 미래를 말해 주는 듯 가을하늘을 이고 더욱 아름답게 비친다.

폐수처리장 공정도 (Flow Sheet)

